

집합금지·제한업종·중기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10억까지 저리 지원

(1.9%)

전북중기청, 비대면 통한 신속지원 체계로 추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정부의 방역 조치 강화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제한업종 및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집합금지·제한업종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2

년거치 3년 상환, 3년간 15억원)로 집합금지·제한업종은 1.9%(고정금리),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은 2.15%(변동, 2021년 1/4분기 기준)의 금리를 적용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청요건을 완화해, 공간적 제약과 서류준비에 필요한 시간요소를 대폭 줄이고 상담부터 약정까지 비대면 체계를 통한 신속지원 체계로 추진할 방침이다.

윤종욱 전북중기청장은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의 지원이 집합금

지·제한업종 및 코로나19 피해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집합금지·제한업종 및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or.kr), 중진공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지난 26일 김제시에서 열린 'LX 정밀농업 현장세미나'에서 예철용 드론이 농작물 촬영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드론으로 병충해 방제·제초제 살포까지?

LX 공간정보연구원, 정밀농업 분야 무인기 영상 촬영 현장세미나 민간기업·독자기술 결합 예찰·방제용 맞춤형 드론 선택 '눈길'

드론, 빅데이터, AI, 5G 등 최첨단 신기술(ICT)을 융합한 정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원장 손종영)은 지난 26일 김제농협 대회의실에서 손종영 원장, 이규재 미래농업포럼 이사장, 최재용 전북 농축산식품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밀농업 분야 무인기 영상 촬영 현장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속가능한 정밀농업 발전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LX공간정보연구원, 삼정KPMG, 에릭슨IG, 전북대학교, (주)지이엠,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비아, 메타로보틱스, 두시텍 등 주요 산·학·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밀농업의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 세션에서는 '정밀농업과 공간정보,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한 LX공간

정보연구원 배성훈 책임연구원의 발표를 시작으로 '드론 영상과 공간정보를 이용한 농작물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전북대 강래형 교수)로 이어졌다.

뒤이어 '공간정보 활용 농업혁신 방향 및 정책 제언', 5G 기술변화와 공간정보'라는 주제로 각각 삼정 KPMG 김태영 이사, 에릭슨 IG 강지훈 팀장 등 정밀농업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ICT 기업들의 발표가 마련됐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지역 기반 디지털 뉴딜사업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박상진 본부장의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농경지의 정밀 데이터를 취득하고 병해충을 파악하는 예찰용 드론과 방제용 드론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시연한 병해충 예찰용 드론은 LX공간정보연구원과 서브모터 브랜드 중 세계 1위 업체인 (주)하이텍 알씨디코리아가 맞춤형으로 제작한

국산 드론으로 전 세계에서 5대 밖에 없다.

김민관 선임연구원은 “농지 병해충을 드론으로 촬영하고 AI로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병해충 예찰과 방제가 가능해졌다”며 “경작지의 상태에 따라 제초제 살포가 가능해져 농작물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성훈 책임연구원은 “지난 2년 간 추진해온 ‘드론을 활용한 농경지 관측 정보 DB 구축사업’을 통해 수급 예측이 어려운 농작물의 식생을 기록·분석해 병해충 예방을 위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전북대와 함께 어떤 드론에도 사용 가능한 오픈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종영 공간정보연구원장은 “농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기초산업이며 공간정보 및 ICT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며 “정밀농업의 이해를 높이고 기술 혁신을 더해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과 전북도는 전북 딸기 홍보 판매전을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전주하나로클럽 등 호남권과 수도권 주요 판매장에서 동시에 개최했다.

‘싱싱한 전북 딸기 맛보러 오세요’

전북농협, 수도권-호남권 판매장서 딸기 홍보 판매전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전북 딸기 홍보 판매전을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전주하나로클럽 등 호남권과 수도권 주요 판매장에서 동시에 개최했다.

전북농협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소비축진과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를 위해 이번 판매전을 준비했으며 딸기를 시작으로 매일 두류,

감자 등 품목별 주출하시기에 맞춰 기획 판매전을 농협 하나마트 및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앞으로도 전라북도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삼락농정 실현 및 전북 원예농산물 대외 브랜드 ‘예답제’를 통해 우수한 우리지역 농산물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경진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대표자 성인지 감수성 교육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이하 청년혁신가) 참여 사업자의 대표자(또는 임원)를 대상으로 29일 ‘엔택트 시대 기업가 정신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다.

대표자 교육은 엔택트 시대의 변화 관리와 기업가 정신에 대한 강연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언

택트 시대의 변화된 경영 환경 및 기업가 정신에 대한 학습으로 참여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능력을 제고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통해 올바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www.청년혁신가.kr)와 경진원 자치경제팀(☎063-711-2086~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최첨단 보행재활로봇 치료 효과·만족도 ‘베리 굿’

전북대병원, ‘모닝워크’ 도입 환자들 ‘100점 만점에 80점’

착용하는데 불편 없고 일반 보행훈련보다 ‘더 만족’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환자들의 보행재활 치료를 위해 도입한 최첨단 보행재활로봇의 치료 효과와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는 재활로봇특화센터를 열고 상하지 재활로봇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뇌졸중, 척추질환, 소아발달장애, 신경근골격계 환자 등 다양한 환자에게 양질의 재활로봇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는 최첨단 보행재활로봇인 ‘모닝워크’를 도입해 환자들의 재활 치료에 활용하고 있다.

모닝워크는 국내 기업이 개발한 보행재활로봇 치료 장비로 보행능력을 되찾기 위해 중추 신경계의 회복 및 근육의 재건과 관절 운동기능의 회복 등에 사용되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 기구로 스타일한 보행 패턴 구현 ‘환자별 파라미터 설정 기능



△좌/우측 하지 파라미터 개별 설정 기능 △능동 체중 및 보행 보조 기능과 훈련결과를 리포트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재활의학과에서는 모닝워크 도입 직후부터 환자를 대상으로 로봇을 이용한 보행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행로봇 치료에 참여한 환자 53명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시행한 결과, 100점 만점의 평가 지표에서 80점을 보여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보행재활로봇의 활용은 선형연구로 검증된 임상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뇌졸중, 편마비, 척추손상, 외상

성 뇌손상, 완전마비 등의 환자들에게 모닝워크 설치 후 3개월 동안 188.5 시간 치료를 실시했으며, 질환별 환자 맞춤형 재활로봇 치료서비스를 377건 제공했다.

환자들은 보행로봇을 착용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었고 치료과정과 치료 후에 보행능력 전반적인 재활치료에 도움이 됐으며 일반 보행훈련에 비해 보행로봇 치료가 더 만족감을 줬다고 답변했다. 또한 치료를 받은 환자 중 90%가 기회가 주어지면 보행로봇 치료를 다시 받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보행로봇을 이용한 치료가 환자에게 일반 보행훈련보다 나사와 부상 등 신체적 안정 위험이 적었으며 보행능력 회복에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활의학과 고명환 교수는 “재활로봇센터에서는 보행재활로봇 치료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환자의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환자의 보행패턴에 대한 정밀분석과 맞춤형 대응훈련을 통해 최첨단 로봇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의학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국가식품성분 데이터센터 지정

전북농기원, 식품영양성분 분야 최초...비타민 B1 등 데이터 생산

전라북도농업기술원(원장 박경숙)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위원회로부터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공동으로 식품영양성분 분야 최초 ‘국가식품성분데이터센터’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식품성분데이터센터 지정에 따라 전북농업기술원은 ISO9001과 동등한 수준의 데이터 품질시스템을 확보·운영할 예정이며 앞으로 5년 동안 국내 식품 속에 함유되어 있는 신뢰도와 정확성이 인종별 비타민 B1(티아민)과 B3(나이아신) 참조데이터 1,000점을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인증된 고품질의 참조데이터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국가표준식품성분표’에 수록되어 국민건강 영양 조사 및 영양소 섭취기준 설정, 공공 급식 계획 수립 및 영양표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2019년에 발간된 국가표준식품성분표 제9개정판에 수록된 미량영양성분인 비타민류의 국내 데이터 자급률은 30% 정도로 일반 영양성분 83%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빈곤으로 남아 있는 식품 2,000점에 대한 비타민류 데이터 확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농업기술원에서는 2019년부터 ‘국민 식생활 밀착형 국가표준식



품성분 DB 구축 연구’ 과제를 수행 중으로 2020년 비타민 B1과 B3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까지 식량자원 250점에 대한 비타민 분석을 완료한 바 있다.

작물식품과 최소라 연구관은 “국가표준식품성분표를 통한 식품 자원의 영양성분 정보 제공은 우리 나라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금후 분석속도를 검증해 신뢰도 높은 비타민 데이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영희 기자



박지현 전기안전공 사장 직무청령계약 체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5일 전북 혁신도시 본사에서 박지현 신임 사장과 청령문과 정작과 투명한 기관 운영을 위한 직무청령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서 박 사장은 직무와 관련된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직무청령계약서에 서명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통해 윤리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직무청령계약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전 임원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체결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을 담고 있다.

박지현 사장은 “최근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윤리의무 준수는 우리민들의 다짐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 실천에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